

 한국문화원 <small>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small>		<h1>보 도 자 료</h1>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7.8.14 (월)	담 당 자	Tammy Chung 323-936-3015	

2017 ARI Project <옛 찾자리 “접빈다례와 선비다례”> 공연

공연으로 보는 접빈다례와 선비다례



- ▶ 공연명 :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옛 찾자리 “접빈다례와 선비다례”
 Korean Traditional Tea Ceremony "Tea Ceremony for Royal Guests from Abroad & Tea Ceremony of Scholars"
- ▶ 일시 :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명원문화재단 CA, AZ지부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여덟번째 무대로 명원문화재단 CA, AZ지부(원장 이영미)와 함께 <옛 찻자리 “접빈다례와 선비다례”> 공연을 8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공연으로 보는 <옛 찻자리 “접빈다례와 선비다례”>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행사는, 이영미 원장과 명원문화재단 CA, AZ지회 회원, 지윤자(중요무형 문화재 가야금산조 23호 전수자/해외명예전승자), 이병상(대금, 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등 미주지역 공연가들이 함께 궁중다례중 귀빈을 접대할 때 차를 대접하는 ‘접빈다례’와 선비들이 차를 나누는 ‘선비다례’를 공연형식으로 재조명해 보는 특별한 행사이다.

예법과 문화의 집합체인 조선왕조의 궁중다례는 국민 접견, 궁중 연향, 궁중 제향 등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왕실의례로, 엄격한 정형미를 갖춘 궁중의 최고급 문화였다. 궁중다례는 사신과 같은 칙사나 종친 등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접빈다례, 명절이나 국왕 또는 대비의 회갑 등 왕실의 경사에서 진다의식(進茶儀式)을 포함한 진연다례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접빈다례는 귀빈을 접대할 때 차를 대접하는 예법과 의식이다. 우리에게서 개인의 모습, 차림, 몸가짐, 말씨 등의 모든 개인의 행동거지를 취할 때에나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생활할 때에 지켜야 할 전통적인 훌륭한 법도가 전해져 내려 왔다. 이러한 예절과 법도 속에서 조상과 부모, 스승,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예법을 손님을 접대할 때 차를 대접하는 법에서 배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접빈다례를 소개한다. 특히, 출연진들이 각나라 전통의상을 입고 찻자리를 함께한다.

또한, 한국의 옛기록을 보면 선비들이 산에서 자연과 함께 홀로 차를 마시는 장면, 여럿이서 차를 즐기고 시를 지으며 즐기는 모습, 차를 나누며 깊어지는 우정을 묘사한 장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선비다례도 재현할 예정이다. 공연후에는 모든 출연자 및 관객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연잎차와 수국차, 다식, 떡 등을 함께 나누는 다찬회도 진행된다.

공연을 기획한 이영미 원장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사사받고 미서부 지역 한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 한국 전통 다례법을 보존, 교육, 전파에 힘쓰고 있다. 이영미 원장은 “명원 김미희 선생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다례법을 이어온 김의정 이사장의 뜻을 이어받아 미주에서도 우리차 문화의 문화적 다양성을 알리고 문화적 위치를 선양시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차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을 참석하시는 모든 분께 전통다식과 도자기 찻잔을 준비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 차 문화의 우수성을 재 조명하고 공감하게 될 이번 행사는, 우리 2세와 타민족과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LA한국문화원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하여 수준 높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클래식, 무용, 국악, 인형극, 재즈, 탈춤, 궁중다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16회 선보일 예정이다.*

옛 찾자리 “접빈다례와 선비다례” (프로그램 /출연진)



1. 접빈다례

접빈다례는 귀빈을 접대할 때 차를 대접하는 예법과 의식이다. 우리에게서 개인의 모습, 차림, 몸가짐, 말씨등의 모든 개인의 행동거지를 취할 때에나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생활할때에 지켜야 할 전통적인 훌륭한 법도가 전해져 내려 왔다. 이러한 예절과 법도 속에서 조상과 부모, 스승,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예법을 손님을 접대할 때 차를 대접하는 법에서 배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접빈다례를 소개한다.

2. 선비다례

고위관직에 오른 정 1 품의 명주 영의정과 명조인 제자가 선비들을 맞이하여 차를 우려내어 선비다례를 하고 있다. 화로에 물을 끓여 찻물을 우려낸다. 명주가 차를 우린다. 명조가 우린차를 선비들 상으로 가서 차를 따라 드리고, 자리가동하며 함께 앉아서 차를 즐기며 시를 지으며, 우정을 나누고, 옛 선비들은 자연의 미와 인생의 고난과 즐거움을 차로 느꼈을 것이라 한다. 우리 고시대 선비 다인의 선, 도 수양을 생활에 실천하며 바른 선비다례 보전을 위하여 명원선비 다례법을 재현한다.

3. 다찬회

출연진 및 관객이 다함께 차와 다식을 시음하고 참여하는 의식이다.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명원문화재단 소개>

명원문화재단은 한국의 다도문화 복원에 앞장선 명원 김미희 선생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설립됐다. 한국 다도의 종가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교육기관이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27 호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 김의정 이사장은 한국 전통 다례법을 보존, 교육, 전파하고 있으며 궁중의식, 한복, 음식에도 문화적 패러다임을 세워 고수하고 있다. 명원 문화재단은 명원다례전수관, 한국명원차문화연구소, 명원다도대학원, 삼청각 명원 차문화원, 운현궁 예절학교, 지리산 명원 차원(茶園), 전국 지부와 지회, 해외 지부에서 다양한 계층의 명원 차인을 육성하고 있다. /끝/